

발제신청서 및 발제문

단체 이름	단체 대표 성함	발제신청자	
청새치	양세이	안희철	
참가하게 된 동기 & 얻어갔으면 하는 것			
청년의 정치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발제문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주장이 담기면 더욱 좋습니다. ex. ~~로 ~~를 하자!)			
산업화와 민주화 그 너머에 있는, 지금은 어두운 언덕을 우리가 밝혀야 합니다!			
지정 질문 (3 분이내 발제할 수 있는 내용)			
Q1. 청년이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 필요한가요? 구체적 근거나 예시를 들어주세요.			
<p>1. 청년이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연히 나서야 합니다.</p> <p>청년들이 스스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비정규직 문제, 최저임금 문제 등 많은 청년의제들이 있고 많은 청년 단체들이 이러한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일부분 성과도 있습니다. 다른 패널들께서 어떠한 청년단체에서 어떠한 성과를 이끌어 냈는지 예를 들어 주실 것 같아서 저는 생략하겠습니다.</p> <p>2. 우리는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개구리를 살려야 합니다.</p> <p>청년이기 때문에 청년의 문제, 혹은 청년의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청년의제들이 청년만의 문제로 받아들여지기 전에 한국 사회의 문제 중 하나로 받아들여야 하고, 한국 사회를 위기에서 구출하는 과정에서 청년문제가 함께 해결되는 방향으로 고민해야 합니다.</p> <p>맥킨지 한국 보고서에서는 “한국을 뜨거워지는 물 속에 담겨진 개구리”라고 표현하였습니다. 따뜻한 물이 곧 펄펄 끓어 넘칠 것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죽는 개구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곧 한국사회에 성장동력이 전혀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의 현재이자 곧 한국의 미래가 될 청년들이 청년의제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개구리를 뜨거워지는 물속에서 꺼내어 불 속으로 집어넣는 것과 같습니다.</p> <p>요컨대, 청년의제는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그것만을 위한 활동이 되면 그것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지지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사회문제들의 중요한 부분으로서 청년문제를 다루고, 청년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과 함께 고민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즉, 청년이기에</p>			

청년의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우리 스스로의 문제이기 때문에 청년의제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개구리를 살리기 위해서 풀어가야 하는 사회 문제 중의 중요한 일부분으로서 다루어야 합니다.

3. 국민에게 지지받지 못하는 방법은 청년에게도 지지받지 못합니다.

과연 그것이 무슨 차이가 있을지 의아해 할 수도 있습니다. 예컨대, 과거의 청년당 역시 청년의제를 중심으로 논의와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생각보다 큰 지지를 받았고 응원도 받았지만, 실제로는 정치권에 거의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년당은 당시 크게 청년자립, 국민행복, 정치개혁이라는 3 가지 기조를 중심으로 당을 이끌어 갔었지만 청년의제에 대부분의 당책이 집중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들 스스로의 움직임 정도로서 화제가 되고 이슈화가 되었을지언정 그들이 사회의 대안 세력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이 제기되었고, 그렇게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일 그때 당시에 사회 전반의 문제에 비전을 제시하고 그 중에서 청년의제에 더욱 깊이 있는 답을 제시하였다면 우리 세대가 조금은 더 사회의 대안 세력으로서 논의가 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즉, 청년들의 문제를 단순히 세대 간의 갈등으로 격하시키거나 정권교체의 문제 등으로 쟁점을 흐리면 안 되고, 경상도와 전라도로 대표되는 남남갈등, 정치 제도적 문제,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 이후의 새로운 패러다임, 그리고 그 패러다임 속에서의 우리의 역할 등 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면서 청년문제를 함께 풀어가야만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서 청년들의 지지 역시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4. 잘못 쌓여진 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만, 무너진 탑을 다시 잘 쌓는 것은 어렵습니다.

잘못 쌓여진 탑을 무너뜨리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무너진 탑을 제대로 잘 쌓는 것은 많은 고민과 깊은 생각, 그리고 비전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 고민과 생각, 비전이 단순히 청년이기에 청년의제에 집중되기 보다는 다음 세대의 주역이기에 전반적인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갖되 청년의제를 항상 염두에 두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잘못 쌓여진 탑을 무너뜨리기만 할 뿐, 다시 그 탑을 올바르게 쌓지는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Q2. ‘청년 정치세력화’, 혹은 ‘청년 정당’이 대한민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지닌다고 생각하시나요?

1. 청년만을 위한 정치세력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청년의 정치세력화는 청년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한국은 성장 동력이 전혀 없고, 산업화와 민주화 시대 이후의 시대에 대한 준비나 대비가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기성세대는, 구체적으로 산업화 세대와 민주화 세대는 다음 시대를 이끌어갈 준비가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합니다. 단순히 공부를 더하고 덜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패러다임의 문제이고, 생각의 차원의 문제입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 하자면 다음 시대의 패러다임에 적응할 수 있는, 그리고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낼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이기에 다음 시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정치 세력화를 해야만 합니다.

2. 개미는 이 세상이 2차원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개미는 이 사회가 1차원 혹은 2차원으로 구성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앞이나 옆만 보고 직진을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적어도 3차원의 공간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물리학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 3차원의 공간에 시간이라는 차원이 더해져서 4차원의 시공간이고, 사실 더 깊게 들어가면 숨겨진 차원들이 있어서 11차원으로 구성되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몇 차원에 살고 있는지조차 모른다. 또 다른 예로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지구가 둥글다는 당연한 진리조차 알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즉, 자신의 패러다임 속에 갇혀 있다 보면 그 이상의 패러다임을 생각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3. 우리 선배들 역시 이 세상이 2차원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산업화세력은 민주화시대에 적응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민주화라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죠. 하지만 486 세대 혹은 586 세대라 불리는 민주화 세대는 산업화라는 것을 태어나자마자 받아들였고 산업화가 이미 몸에 체화된 세대이기 때문에 민주화라는 개념을 쉽게 받아들이고 산업화 너머의 민주화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이제 민주화 시대 그 너머에 있는 시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민주화 세대는 마치 산업화 세대가 민주화 세대에 적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처럼, 그 한계에 봉착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들은 민주화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올지 예측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며 민주화 세대의 프레임 안에서만 그 이후의 시대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장 최근에 새정치민주연합에서 혁신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구성원의 대부분은 우리 세대가 아니지요. 그 혁신위원회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을 살펴볼까요? 조국 위원님은 4선 이상 용퇴, 현역 40% 물갈이 등을 주장하고 있고, 김상곤 위원장님은 “앞으로 계파는 없다”, “불열 행위 용납 못해” 등이라고 말하면 항상 혁신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러한 발언들은 모두 운동권 세대의 전형적인 사고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와 둘이서 피자를 나눌 때 어떻게 나뉘야 공평하게 나눌까요? “다섯 조각 이상 먹으면 뱉어라”, “더 많이 나누는 행위 용납 못해” 등을 주장하면 공평하게 나눌 수 있을까요? 친구에게 칼을 먼저 주고 자르라고 한 후, 내가 그 후에 피자를 고르겠다고 하면 피자는 가장 공평하게 나뉘질 것입니다. 또한 지금처럼 아무리 바보짓을 해도 제 1 야당은 적어도 100석을 차지할 수 있는 왜곡된 결과를 야기한

소선거제 상황에서 마보짓을 하면 지지율에 완전히 비례해서 의석을 뺏기는 독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나, 중선거제 도입등을 과감히 주장해서 경쟁을 촉발시키면 썩어가는 물은 자연스레 정화가 될 수 있겠죠. 내외부적 충격을 줘서 자연스럽게 정화시키는 패러다임이 앞으로의 패러다임, 그리고 우리 시대의 패러다임 이라면, 선을 긋고 이 선 넘어오는 사람은 용납 못한다는 사고는 과거의 사고입니다.

우리 세대는 다릅니다. 민주화라는 것을 태어나자마자 받아들였고 마치 산, 강, 바람처럼 자연이라는 존재가 우리 주변에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산업화와 민주화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자연과 같이 존재하고 있었으며 각종 IT 기술이 자연스럽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4. 우리는 공화화 혹은 공유의 시대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다음 시대가 어떤 시대가 될지는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음 시대를 조심스럽게 공화화 혹은 공유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기술을 중심으로 생각을 시작해 볼까요? 빅데이터, 핀테크, 소셜 네트워크, 공유경제, 클라우드펀딩, 사물인터넷, 그리고 심지어는 헬스케어까지 현 시대 그리고 미래 시대를 주도해 갈 기술들은 별개의 기술들이 아니라 서로 선순환 구조를 갖고 함께 발전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공유를 공동 가치로 하는 기술들입니다. 저는 이런 기술들은 단순히 페이스북, 건강상태체크, 금융서비스 등의 영역을 벗어나 인간 전체의 삶 자체를 변화시킬 거라 생각하고, 그 변화의 중심에는 결국 정치가 있을 것이라 봅니다.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보고, 인간의 행복이 무엇일지를 고민해보면, 그런 것들은 결국 사람과 사람 간 소통과 공유 속에서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발전시키면서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진 삶, 행복한 삶을 아들세대와 후배세대에게 전해주는 것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마치 종족 번식이 동물의 숙명인 것처럼 말입니다.

생각을 공유하고 나아진 삶과 진보된 사회를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겠지요. 결국 위에서 언급한 기술들은 정치구조를 바꾸고 어떤 면에서는 지금보다 더 단순화시킬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곧 정치구조에서도 엄청난 혁신이 이뤄질 수 있겠지요.

저는 결국 그 변화를 추구하고 실행시킬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기술혁명을 부담스러워하는 기성세대가 아니라 하나의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청년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에서 단순히 기술을 예로 들어 이야기를 시작했지만, 이러한 공유 및 공화의 정신은 복지국가나 나눔의 정신 등이 현재 시대에 점점 중요한 이념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즉 인문학적 철학과 기술의 발전이 모두 공화화의 방향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5. 이 시대 패러다임에 적용할 수 있는 세대는 우리밖에 없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지만, 청년이 세력화를 해야 하는 이유를 고민할 때 절대로 청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에 초점이 맞춰져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그 누구도 청년의 세력화를 바라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 현재의 기성 세대로만으로는

절대로 다음 시대의 패러다임 속에서 성장 동력을 찾을 수 없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국민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밖에 없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실현해 나갈 때 진정한 청년의 세력화, 청년 정치의 세력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입니다.

Q3. 2016 년 총선, 17 년 대선을 염두에 두었을 때,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들이 어디까지 행동해야 한다고 보시나요? (ex. 투표, 정책 발의, 선거운동, 입후보, 창당 등)

1. 이 사회를 주도할 세대가 우리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활동을 해야 합니다.

당연히 정책발의, 선거운동, 매니페스토 운동, 입후보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번 총선 때부터는 이 사회를 주도할 세대가 현재의 20 대, 30 대, 40 대 초반 세대라는 점을 분명하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활동을 해야 하고 그러한 활동을 통해서 앞으로의 사회를 주도해 나갈 세대, 그리고 믿고 맡겨야 할 세대가 바로 우리 세대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오프라인 활동에 있어서 기존처럼 선거동원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매니페스토적인 측면에서 고민을 하는 활동을 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국민들과 공유하고 국민들의 지혜를 모으는 미국의 무드온과 같은 온라인 활동도 함께 해야 합니다. 청년문제에 대해서 단순한 걱정이 아니라 깊은 고민을 하고 이러한 고민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함께 이루어 질 때, 청년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매번 해왔던 단순히 선거동원을 당하면서 청년문제를 꺼내 들거나, 혹은 페이스북으로 좋아 보이는 게시물을 공유하는 수준에서는 절대로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준까지 나아가기 힘들 것입니다.

2. 총선과 대선 이후를 생각해야 합니다.

또한 저는 2016 년 총선에 대한 우리의 행동도 중요하지만 2016 년 총선 이후를 고민해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양당제 구조 하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정적인 양당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으면서도 매우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선거구제 체제 하에서는 1 등만 살아남기 때문에 여당과 제 1 야당의 후보가 아닌 이상 당선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다보니 자신과 성향이 맞지 않아도 억지로 새누리당 혹은 새정치민주연합에 소속되는 경우가 많지요. 그러다보니 항상 불안하고 항상 분당의 위기가 있습니다. 즉 너무나 다른 성향의 사람들이 한 당에 모여 있다 보니까 하나의 정당 안에서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매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2016 년 총선 이후에 정당 사이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모릅니다. 다만, 무엇이든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그 가운데서 우리 청년들이 야권 구조가 개편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시기가 2017 년 대선 이후가 될 수도 있고요. 언제 그 변화가 이루어지던 우리 청년들은 그 변화에, 그리고 야권 재편에 청년 정치세력이 중심세력으로서 존재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만일 그러한 변화에서 또다시 변두리 존재로 남게 된다면 다시 한 번 좌절의 세대로 남게 되겠죠. 즉, 변두리 존재로 남게 되어 절대로 청년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주체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3. 변화의 중심에 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요컨대, 총선과 대선을 준비하며 변화의 중심에 우리 세대가 있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 활동에 있어서는 청년문제에 대하여 단순한 걱정을 하는 활동이 아니라 고민을 하는 활동이 있어야 하고, 동시에 미국의 무브온 등의 온라인 활동이 함께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목표를 이루는 데에 한층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거라 봅니다.

지정 질문 외에 하고 싶은 이야기 혹은 참고자료 (자유 분량)

청년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일반적으로 단순히 우리는 모두 함께 힘을 모으고 뭉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세력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단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청년 단체를 살펴보면, 당의 소속된 단체들과 당 외부에 있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당 외부에도 정말 다양한 성격의 단체들이 있지요.

제가 청년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점은 우선 정당 내부의 청년단체들과 정당 외부의 청년단체들 사이에 거리감이 있다는 점입니다. 정당색이 조금이라도 묻게 되면 당 외부의 청년단체의 본래적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정당 외부의 여러 단체들 역시 조금씩 성격을 달리하기 때문에 서로가 섞여서 활동하는 경우가 많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각자의 개성이 있기에 별개로 활동하는 것이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쉽게 뭉치기도 해야 하는데 그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선 정당 외부의 청년단체들이 더 자주 모여서 사회 문제를 논의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러한 활동을 하면서 사회문제에 대해서 공동의 문제의식을 형성하고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후 정당 내의 청년단체들과도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함께 해야 합니다. 사회의 많은 문제들은 어차피 정치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정당 내의 청년들과도 함께 사회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 내고 그러한 합의를 통해 정치적, 사회적으로 풀어가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요컨대, 우리 청년이 하나로 뭉쳐야 한다는 당위성 하나로 뭉치는 것보다는, 우선 정당 외부의 청년 단체들이 각각의 색을 잃지 않으면서도 사회 문제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고, 그 후 정당 내의 청년단체들과도 그 합의점에 대해서 깊은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그러한 합의를 통해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사회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거친다면 조금은 더 지금보다는 한걸음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같은 자리가 너무 소중한 것 같습니다.